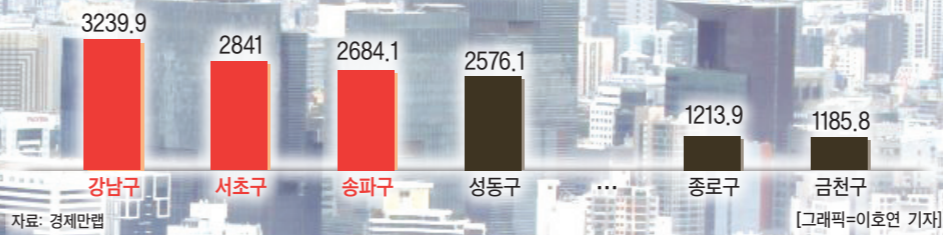


文정부 4년간 강남 3구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라

(서초·강남·송파)

서울 자치구 3.3㎡당 아파트값 상승금액 (단위: 만원)



“은마 아파트, 같은 기간 10억5000만원 올라” 서울 APT 3.3㎡당 평균매매가 2000만원 상승

경제만랩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 3구로 나타났다.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다.

문 대통령도 올해 5월 10일에 진행된 4주년 특별연설에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한 바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3.3㎡

(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5.9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4358.2만원으로 4년간 2032.3만원이 올랐다. 무려 87.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구의 경우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397.1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7637.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3239.9만원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0.6만원에서 6671.6만원으로 2841만원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2870만원에서 5554.1만원으로 2684.1만원 올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79㎡(약 23평)호실의 경우 올해 5월 11일 22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2017년 5월 27일 12억 원(같은 층)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해 4년간 10억 5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은 87.5%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미도’ 전용면적 84.96㎡(약 26평)은 2017년 5월 20일 11억7000만원(11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5월 1일에는 24억2500만원(10층)에 팔렸다. 4년간 12억5500만원 뛰었다. 상승률은 107.3%에 달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1차)쌍용 아파트’ 전용면적 84.69㎡(약 26평)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6억62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4일에는 15억 8000만원(12층)에 거래돼 9억18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138.7%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잘 알려진 노·노·강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약 26평)은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5일에는 9억 원(6층)에 거래돼 4억7700만원 오르고 1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 도봉동의 ‘한신’ 전용면적 84.94㎡(약 26평)도 2017년 5월 4일 3억 1200만원(15층)에서 올해 5월 3일 6억 9500만원(15층)으로 3억8300만원 오르고 122.8% 상승했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면적 84.98㎡(약 26평)도 2017년 5월 10일 5억1500만원(4층)에서 지난달 9일 10억7500만원(3층)으로 5억6000만원 치솟아, 108.7%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4년간 3.3㎡(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100% 이상 오른 자치구도 4곳이나 나타났다. 성동구

가 2017년 5월 2305.9만원에서 4882만원으로 111.7% 상승했고, 동작구는 2166만원에서 4354.7만원으로 101%, 노원구가 1641.2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105.5%, 도봉구는 1470.8만원에서 2953.8만원으로 100.8%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 가격은 2017년 5월 1641.3만원에서 올해 5월 2346.7만원으로 문재인정부 4년간 705.3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 가격은 2537.5만원에서 3833.9만원으로 1296.5만원 상승해 평균매매가격뿐만 아니라 평균전세가격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는 문제는 투기수요라며 공급은 막고 수요억제를 했지만 결국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진 만큼 민간 공급도 이뤄져야 가격 안정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갖춰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현대건설은 이달 4일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221-5번지 일대에 지어질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1층, 전용면적 84㎡, 총 21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교통은 경부선-대구1호선 대구역과 대구3호선 달성공원역이 가깝고 서성로와 태평로를 이용해 대구 시내를 이동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수창초, 성명여중, 칠성고 등 우수한 학교를 갖춰 학업·휴먼플러스, 계명대 동산병원, DGB대구은행파크, 동성로 거리 상권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금액 등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32번지에 위치한다. 6월 4일-견본주택 오픈

非규제지역 브랜드 아파트

경산 아이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170번지 일대에 ‘경산 아이파크’가 지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42㎡, 전체 97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교통편의 경우 대구2호선 영남대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25분 국도와 경산IC를 이용하면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또 경산 압량초·중교, 경산과고 등 우수한 학세권이 장점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롯데시네마 등 생활편의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경산은 비규제지역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67-4번지에 위치한다. 6월 4일-견본주택 오픈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 복합개발 본격화

역세권 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

서울 역세권에서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 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어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종상향해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가 발표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500㎡ 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2연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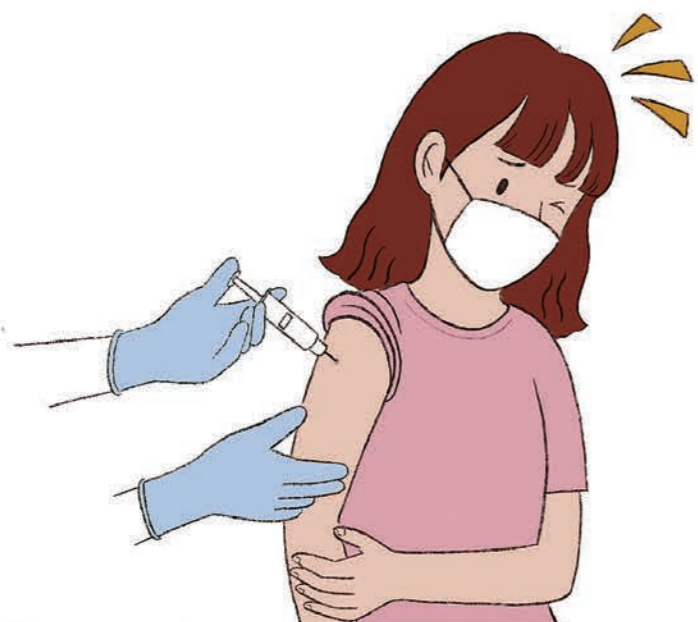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진출입도로 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면 최대 700% 용적률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고밀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 확보를 이유로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홍성기 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SAMJIN 삼진제약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는 필수 상비약입니다.

비타민 B,C가 함유된 유일한 조성의 해열진통제



게보린 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1-1573-0031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타이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